

“80년 5월 여성항쟁 뜨거웠다…체계적 아카이브화해야”

광주여성가족재단, ‘2025 광주민중항쟁과 여성’ 출간

17~27일까지 가두방송·피해 상황 등 일자별 항쟁사 집중 조명
여성연구자·활동가 9인 집필…내일 세계인권도시포럼서 첫 배포

5·18민주화운동 45주년을 맞아 여성들의 오월항쟁사를 조명한 책이 발간돼 주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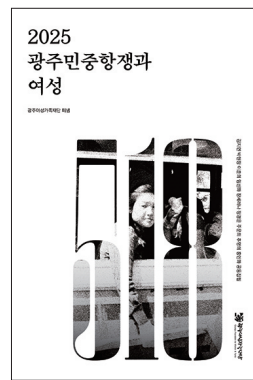
광주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김경례·사진)은 광주민주화운동 역사 속 여성들의 활동상과 피해 현황 등을 총망라한 단행본 ‘2025 광주민중항쟁과 여성’을 출간한다.

이 책은 재단이 지난해부터 1년 여간 준비해 온 작업으로, 광주오월항쟁사 연구 관련 활동을 해 온 여성 연구자와 활동가 9인이 필진으로 참여했다. 김지연 5·18민주화운동기록관 학예연구사, 박현정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팀장, 이춘희 광주전남민주화운동동지회 공동대표, 임선화 광주교

대 강사, 장세레나 광주여성회 대표, 정경은 전남대 문화전문대학원 교수, 주문희 전남도교육청교육연구 수원 주무관, 추명희 한국구술사연구회 연구원, 홍인화 전 5·18민주화운동기록관장 등이다.

이들은 1980년 5월 예비검속이 이뤄졌던 17일부터 계엄군에 의해 전남도청이 함락됐던 27일까지 여성들의 항쟁 경험을 일자별로 기록하고 사망과 성폭력 등 피해를 목록화했다. 여성항쟁사의 일자별 구성은 최초로 시도된 것으로, 이 책의 첫 번째 성과라 할 수 있다.

항쟁 당시 여성들의 활동은 전방위적이었는데, 가두방송, 유인물 제작과 배포, 대자보 작성, 부상



자 간호 및 수술, 대민업무, 모금과 취사, 화염병 제작, 시신 처리, 장례 준비 등 활동을 전개했다.

수많은 여성이 시위에 참여해 주먹밥을 만들고, 가두방송을 통해 시민들을 규합해 나가는 동안 녹두서점과 광주YWCA에서는 여성들의 조직화된 활동이 전개됐다. 전남대 앞에서 계엄군과 학생들의 충돌이 발생했던 18일 오전부터 23일까지 녹두서점은 지역 내외와 시내 안의 정보가 최초로 수집되고 전달된 장소다. 여성들은 이곳을 중심으로 연락 및 상황일지 정리, 시민궐기대회 준비, 소식지 제작

및 배포 등 일을 분담해 활동했다.

항쟁에 대대적으로 참여한 만큼 피해도 컸다. 전국에 걸친 예비검속이 이뤄진 17일과 18일 이후 항쟁기간 동안 수많은 여성이 연행돼 고문을 받았다.

이들 중 일부는 수사 과정에서 성고문 및 강간을 당하기도 했다. 국가보고서를 통해 정리된 여성 성폭력 사건은 52건이지만, 이외에 신고조차 못 하고 혼자서 모든 상처를 감당해내야 했던 여성들도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부상자는 172명으로 기록돼 있지만, 이 또한 훨씬 더 많은 이들이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전체 사망자 166명 중 여성은 12명이며, 가장 나이가 어린 여성 사망자는 14세였다.

특히 이번 책에서 발견되는 이 같은 당시 여성들의 행방불명, 사망, 성폭력 등 피해상황을 최초로 목록화했다. 다만, 국가보고서에서조차 성별 분리 통계가 거의 없어 연행자 및 구속자는 목록화할 수 없었으며, 행방불명자 목록은 여러 자료의 비교 검토를 통해 겨우 작성됐다. 따라서 더 많은 피해 상황을 사망, 증언불능, 증언거부 등 다양한 사유로 목록화하지 못한 한계가 남았다.

재단은 책 발간에 맞춰 16일 오후 4시 30분 김대중컨벤션센터 211~213호에서 “2025 광주민중항쟁과 여성” 주제 세계인권도시포럼을 열고 책을 첫 배포할 방침이다. 포럼에서는 책 발간의 의미와 주요 내용, 해외 여성 인권운동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갖는다. 김경례 광주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가 좌장을 맡고, 정경은·이춘희 필진과 파르하나 빈테 지 가르 파리나 방글라데시 여성인권운동가가 발제를 진행한다. 토론자로선 차영귀 서강대 서강국제한국학선도센터 민주주의연구실 5·18Lab 책임연구원, 하주희 법무법인 율림 대표변호사, 임영희 광주 5·18 시민군 출신 작가가 참여한다.

김경례 대표이사는 “광주민중항쟁 속 여성들의 목소리를 담은 ‘2025 광주민중항쟁과 여성’을 시민과 함께 나누며 오월여성사의 기억과 실천을 지역 사회에 환기하고자 한다”면서 “앞으로도 5·18과 같은 역사 속 여성들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발굴, 아카이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포럼은 무료로 참여 가능하며,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신청하면 된다. 김다경 기자 alsqsd194@



‘제15회 전국 오월창작가요제’
24일 민주광장…14팀 본선 경합
8팀 창작지원금 2400만원 수여

(사) 오월음악악이 주최·주관하는 ‘제15회 전국 오월창작가요제’ 본선 무대가 24일 오후 6시 5·18 민주광장에서 열린다.

전국 오월창작가요제는 2010년 5·18민주화운동 30주년을 기념해 민주, 인권, 평화의 정신을 음악으로 이어나가기 위한 취지로 시작됐다. 이후 오월정신의 가치를 시대에 맞게 새롭게 해석하고, 광주정신을 전국에 알리는 음악행사로 자리 잡았다. 올해 가요제는 기존에 해왔던 2차예선의 과정을 생략하고 본선무대에서 더 많은 팀을 대중에게 소개하는 형태로 새롭게 진행된다.

예선에는 총 154곡이 접수된 가운데 참가신청서, 연주영상, 음원 등을 기반으로 5인의 심사위원의 심사를 통해 총 14팀이 본선진출의 기회를 얻게

됐다.

본선 경연에서 만나볼 곡은 Habitat의 ‘자유롭게’, 소담의 ‘봉천 3동 한올이에게’, 언더독의 ‘빛’, 앨리스의 ‘비와 건기’, 답답의 ‘상처’, 길몽의 ‘푸른 봄 희망가’, 영화와 민중의 위대함을 담은 맨인블루스의 ‘레디 액션’, 고명원밴드의 ‘그 날 그 밤에’ 그리고 예림의 ‘거리를 행진하는 소리’, 페이퍼 몬스터의 ‘아침을 부른다’, 휘향상점의 ‘여기가 운데, 나 홀로 남아’, Opulse의 ‘유토피아’, 홍조X한스의 ‘비 내릴 비’, 하노의 ‘소년이 소년에게’ 등 총 14곡이다.

올해 가요제는 전년도 대상팀인 삼점일사의 축하공연으로 문을 열고 14팀의 경연 및 광주 음악인들의 축하공연을 선보인다.

심사를 통해 대상 1000만원(1팀), 금상 500만원(1팀), 은상 300만원(1팀), 동상 200만원(1팀), 장려상 100만원(4팀) 등 8팀에게 총 2400만원의 창작지원금을 수여할 예정이다. 문의 062-682-0518.

김다경 기자 alsqsd194@

평화의 조각보로 떠올리는 ‘5·18’ 특별전

비움박물관 31일까지 조각보 생활용품 출품

광주비움박물관(관장 이영화)은 5·18민주화운동 45주년을 맞아 ‘평화의 조각보 모아보자 모아보자 모아서 이어보자’라는 주제로 특별전시를 지난 8일 개막, 오는 31일까지 갖는다.

이번 전시에는 지난 봄 전시와 같이 옛날 어머니들이 만든 조각보 생활용품들을 출품, 선보이고 있다. 보자기를 비롯해 밥상보, 이불보, 가리개 등 종류는 같으나 봄 전시와는 또 다른 다양한 손바느질 작품들을 만날 수 있다.

비움박물관 측은 유난히 어지러운 요즘 시국에 지치고 상처입은 국민들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수많은 작은 천으로 하나하나 이어진 조각보를 떠올렸다.

지난 봄 전시와 이번 5월 특별전시를 연계해



전시 전경

다채로운 옛날 조각보 작품들을 풍성하게 볼 수 있는 조각보 시리즈를 기획한 이유다.

세상 부지런한 옛 어머니들이 오디, 치자, 쪽 풀로 염색한 조각 천들을 모아 이리저리 이어서

만든 작품들은 그 자체가 조화이고 화합이며 평화를 의미한다. 이영화 관장이 민속품을 수집하며 천연 재료로 손수 염색한 수백 점의 조각보 작품도 함께 선보인다.

전시기간 중에는 동구지역자활센터와 협력해 진행되는 ‘조각보 손가방 만들기’ 체험활동이 네 차례 마련된다.

동산초등학교 3학년의 전통문화체험학습(9일)에 이어 주먹밥 무료 나눔(15일), 일본 시민단체와 함께하는 동학농민운동 세미나(16일) 등 여러 행사도 예정돼 있다.

한편 광주에서 유일한 사립 민속박물관인 비움박물관은 3만여점에 이르는 방대한 소장품들 중에서 계절마다 특정 주제와 맞는 전시품들을 선별해 1층 기획전시실에서 선보이고 있다. 봄 기획전시, 5·18특별전시에 이어 올 여름, 가을, 겨울에는 옛날 농경 도구와 관련한 기획 전시를 진행할 예정이다.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

영화 로망스, 휴스턴국제영화제 백금상 수상

GICON 제작 지원…로맨틱코미디 부문 영예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GICON)은 제작지원한 로맨틱 코미디 영화 ‘로망스’가 최근 막을 내린 제58회 휴스턴국제영화제 극영화 로맨틱코미디 부문에서 백금상(Platinum Remi Award)을 수상했다고 14일 밝혔다.

휴스턴국제영화제는 ‘샌프란시스코·뉴욕 영화제’와 함께 북미 3대 전통 영화제로 손꼽힌다. 스티븐 스필버그, 조지 루카스, 코엔 형제, 이안 등 세계적인 감독들의 초기 작품들이 이 영화제에서 수상하며 명성을 쌓았다. 이번 휴스턴국제영화제

에는 80여개국에서 7600여편의 작품이 출품돼 치열한 경쟁을 펼쳤으며, ‘로망스’는 장편극영화 로맨틱코미디 부문에서 최고상인 백금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영화 ‘로망스’는 회사 해고와 어머니의 죽음으로 맞절을 물려받게 된 주인공 혜경이 자신의 열기 영상이 SNS에 퍼진 사실을 알게 되면서 벌어지는 사건을 그린 로맨틱 코미디다. 첫 만남은 어색했지만 점차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고 치유해가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따뜻하면서도 유쾌하게 풀어냈다.



광주시와 GICON은 ‘광주 브랜드 영화’ 육성을 위해 꾸준히 영화 제작 지원을 이어오고 있다. ‘로망스’ 외에도 ‘어디로 가고 싶으신가요’(2023년 개봉, 전주국제영화제 폐막작), 독립영화 ‘이력’(2023년 부산국제단편영화제 한국경쟁 부문 선정) 등 꾸준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올해도 총 36편의 독립영화가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8편(장편 3편, 단편 5편)이 제작지원작으로 최종 선정된 바 있다.

송대경 기자 sdw0918@gwangnam.co.kr

kidp 한국디자인진흥원 공인디자인전문회사

회사 홍보를 고민하십니까? 다큐디자인으로 오십시오

다큐디자인은

- 사보, 사사, 회보, 지명원 등 회사 홍보를 위한 기획, 제작 전문 회사입니다
- 기획부터 취재, 원고작성, 사진촬영, 출판까지 One-stop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런 일을 하실 분들은 연락주십시오!!

- 사보, 사사, 단체사, 회보, 지명원 등 기록물 간행을 원하시는 분
- 자서전, 회고록, 시집, 수필집, 소설, 사진집 등 단행본 출판을 원하시는 분

DOCUdesign
다큐디자인

광주광역시 동구 백서로 125번길 6(금동) T. 062)529-7107 M. 010. 8345. 0103